

‘키자니아 GO! 광주’ 특별전 가보니

놀이로 생생하게 직업을 체험하는 ‘키자니아 GO!’ 특별전이 광주에서 한달 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사진은 어린이들이 일일 간호사가 돼 신생아실에서 아기 돌봄 체험을 하는 모습. <ACC재단 제공>



“다양한 직업체험하며 미래 꿈 키워가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사람 들어 올리겠습니다. 돌아갈 때도 구호 함께 외쳐볼게요. 생명을! 살리자! 생명을! 살리자!”

소방관 옷과 모자를 갖춰 입은 아이들이 들 것에 응급환자를 싣고 나온다. 서툰 몸짓이지만 심폐소생술을 하며 환자를 구하는 모습이 무척 신중해 보인다.

다른 한 쪽에서는 다친 동물을 치료하는 동물병원 수술실 풍경이 펼쳐진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어린이들이 상처가 난 동물 인형에 약을 발라주고 깁대기 목 보호대를 조심스레 채운다.

어린이들은 일일 간호사가 돼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돌보기도 한다. 목과 영덩이를 받쳐 아기를 안아보고 배꼽 마사지를 따라하며 생생한 의료 현장을 체험해 본다.

런웨이 무대에선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 입은 어린이들이 멋진 위킹과 포즈를 보여주는 패션모델이 돼보고, 자전거수리센터에서 자전거를 고치거나 미술학교에서 부모님들에게 미술 공연을 선보이기도 한다.

119구급대원·수의사·간호사·패션모델·미술사 등 직업 선택부터 대기, 체험 완수까지 자립심 함양 체험 이후 근로 대가 ‘키조’ 벌며 경제관념 확립도

ACC에서만 만날 수 있는 ‘티 카페’도 문을 열었다. 아시아 차 문화를 알리기 위한 직업체험 ‘티 소믈리에’다. 아이들은 각국의 유명한 차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볼 수 있다.

놀이로 생생하게 직업을 체험하는 ‘키자니아 GO!’ 특별전이 광주에서 한달 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ACC재단과의 협력으로 광주·전남에서 첫 선을 보이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현실세계를 축소한 공간에서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ACC 어린이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키자니아는 119 구급대원, 건설코디네이터, 과학수사대원 등 15개의 엄선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막일인 지난달 29일 찾은 키자니아 현장은 현실 속 직업세계를 떠올리게 했다. 각 직업에서 쓰이는 실제 도구와 복장이 마련된 것은 물론 이에 맞는 공간 또한 그대로 구현돼 생생함을 더했다.

이번 ‘키자니아’는 온라인 사전 예매 첫날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이 체험해보고 싶은 직업 부스 앞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다.

체험 시간은 약 15분. 한 타임 당 6~7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곳 키자니아 안에서 어린이들은 직업 선택부터 대기, 체험 완수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에 자연스

레 자립심을 키우게 된다. 체험 과정 중에는 팀워크의 필요성과 함께 배려심, 사회성을 함께 배운다.

직업체험을 완수하면 키자니아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 키조(KidZo)를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은 키조는 이후 키자니아 내 은행에 저금하거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어 경제관념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날 키자니아를 체험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모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학부모 한주은(42)씨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걱정됐는데, 스스로 기다리고 체험하는 모습이 제법 대견스러웠다”며 “광주에서도 키자니아를 즐길 수 있어 좋았다. 아이가 다양한 직업을 접하며 색다른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세인(8)양은 “여러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재밌고 즐겁다. 특히, 구급대원이 돼서 사람을 구한 일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키자니아 GO! 광주’ 특별전은 오는 28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최명진기자

“도심 속 과학관에서 무더위 날려요”

광주과학관 ‘물 과학 체험장’ 운영

도심 속 과학관에서 물놀이를 하며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28일까지 ‘물 과학 체험장’을 운영한다.

올해 ‘물 과학 체험장’에서는 길이 30미터 높이 7미터 규모의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를 비롯해 시원한 바닥분수, 워터터널, 페달보트, 워터바스켓을 즐길 수 있다. 또 쾌적한 이용을 위해 샤워실, 탈의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인명구조자격을 보유한 운영인력이 상주한다. 수시 청소 및 소독 등 안전과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썼다.

아울러 물총놀이나 물총골프, 물총과녁 맞추기 등 여러 가지 부대체험을 운영하고, 깜짝 이벤트와 함께 매주 주



국립광주과학관이 운영하는 물 과학 체험장.

말 생존수영 강습도 진행된다. 전태호 국립광주과학관장 직무대리는 “올해는 보다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준비한 만큼 무더운 여름 과학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신청하세요”

광주여성가족재단, 하반기 참여기관 모집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시민들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인권 증진의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22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하반기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은 일상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단의 무

료 교육 과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75회 운영, 3천89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 내용은 ▲성차별적 제도와 개선방향 제시 및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 ▲여성혐오, 성차별,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젠더폭력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권감수성 등 폭넓은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최명진기자



여름밤 지리산 자락서 즐기는 영화음악회

오는 6일·27일 화염사·사성암 일대

지리산 대화염사와 사성암이 2022 영화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행사로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화염사 화염원 마당, 27일 오후 7시 사성암 도랑 내에서 열린다.

화염사 모기장영화음악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100여개의 모기장 속에서 옥수수과 감자를 먹으며 영화와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최정상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 영화 일포스티노, 시네마천국, 침묵의 OST를 들려준다. 기타와 해금, 아코디언, 콘

트라베이스 선율에 보컬가수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낭만적인 밤을 선사한다. 아울러 음악평론가 조희창이 음악감독을 맡아 해설을 곁들인다.

화염사 말사 사성암에서는 ‘낙락극장’이라는 주제로 영화극장이 마련된다. 조희창 음악 평론가의 맛깔스러운 해설과 함께 영화 속 명장면과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워낭소리 이충렬 감독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대화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소통과 공익 캠페인 등이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을 초청한다.

참가 신청은 화염사 홈페이지 및 전화(010-6243-454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안시기원제 고사

시 제 상

제 사 상

고 사 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뷔페